



2012년 9월 18일(화)

□ 미국 경제 동향

- 1) 2/4분기 미국 재정적자 큰 폭 개선
- 2) 미국 기업 실적, 4/4분기 급반등 기대
- 3) 미증권거래위원회(SEC), 16개 기업 상대로 일시거래중단 조치
- 4) 미의회연구소, 부자감세는 경제 성장 촉진 효과 없다고 발표

□ 해외 경제 동향

- 1) 독일 메르켈 총리, ECB의 국채 매입지지 재확인
- 2) 중국내 한국재외공관, 교민 안전유의 전달

□ 산업·시장 동향

- 1) GM, 미정부 지분 처분 여부 놓고 재무부과 갈등
- 2) 무디스, 내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전망 하향 조정

□ 미국 경제 동향

1) 2/4분기 미국 재정적자 큰 폭 개선

- 지난 9월18일(현지시간) 미상무부는 지난 2/4분기중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1,17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1/4분기 적자폭(1,336억 달러)을 하회, 반면 시장 예상치 1,255억 달러보다는 높은 결과
- 국내총생산(GDP)대비 적자규모도 전분기의 3.5%보다 크게 낮아진 3.0%
 - 이는 지난 2005년 4/4분기 최고치인 6.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하지만 사상 최저인 2009년 2/4분기의 2.4% 대비 여전히 높은 편
- 이 같은 적자폭 감소는 상품수지 적자가 감소했기 때문
 - 이 기간 중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원유 수입액 등이 감소
 - 미국에 대한 대외 투자가 증가, 이자소득 등이 늘어났기 때문

2) 미국 기업 실적, 4/4분기 급반등 기대

- 지난 9월17일(현지시간) 미국 CNBC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미국 기업 실적이 3/4분기까지 부진 후 4/4분기에는 대반전이 이뤄져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이 같은 전망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구분
 - ① 글로벌 경제가 부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웨어에 그칠 것이란 기대감
 - ② 최근 유럽중앙은행(ECB)과 미국 연준(FRB)가 추가 부양에 나서면서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예상
 - ③ 또한 미국 대선이 11월에 예정되면서 당분간 지출 감축이나 세금 인상 요인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기업들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3) 미증권거래위원회(SEC), 16개 기업 상대로 일시거래중단 조치

- 지난 9월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6개의 기업들을 상대로 일시적인 거래중단조치를 내렸다고 보도
 - SEC는 AER 에너지와 알토그룹 홀딩스, 비즈로켓, 팩스 페트롤리엄 등 16개 기업들을 추가해 수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SEC는 수사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증권 거래와 관련된 사기 행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WSJ에 따르면 SEC는 미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회사들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WSJ은 SEC가 금년에만 총 609개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

4) 미의회연구소, 부자감세는 경제 성장 촉진 효과 없다고 발표

- 지난 9월17일(현지시간) 미의회조사국(CRS)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주장하는 것과 달리 경제성장을 촉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층 간 소득격차만 확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 지난 65년간 최고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가 저축, 투자 또는 생산성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주장
 - 오히려 통계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세율이 높은 성장률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이번 연구 결과로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지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고소득층에 대한 한계 세율을 떨어뜨려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간 설전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해외 경제 동향

1) 독일 메르켈 총리, ECB의 국채 매입지지 재확인

- 지난 9월17일(현지시간)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연례 회견에서 독일 정부는 ECB의 최근 결정이 통화안정 차원에서 합당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왔다고 ECB가 통화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통화 안정을 위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 메르켈 총리는 ECB가 유로존 국채시장에 개입하기로 한 것은 재정위기국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아울러 ECB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그리스와 스페인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냄
 - 또한 독일 경제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 부양 가능성도 시사
- 한편 메르켈은 긴축 강화 입장도 확인
 - 재정위기국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경쟁력 회복 등 긴축과 성장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

2) 중국내 한국재외공관, 교민 안전유의 전달

- 지난 9월18일(현지시간) 주상하이 한국총영사관은 다오위다오 관련 중국내 신변안전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
 - 최근 중국내에서 반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교민들은 일본식당을 비롯해 일본인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 출입을 가급적 자제해줄 것을 요청
 - 일본인으로 오인될 수 있는 언행을 삼가 줄 것 당부
- 중국내 반일시위는 전국 80여개 도시로 확산됐으며, 만주사변 81주년인 18일 반일시위는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임

□ 산업·시장 동향

1) GM, 미정부 지분 처분 여부 놓고 재무부와 갈등

- 지난 9월17일(현지시간) GM은 미 정부가 보유한 자사 지분을 모두 되사겠다는 입장을 밝힘
 - 한편 미 정부는 2009년 GM에 50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현재 2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 GM 경영진은 미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되사들여 회사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입장
 - 정부 지분을 해소해야 Government Motors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급여 제한 등에서 벗어나 뛰어난 인재를 확보해 회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
- 한편 미 재무부는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현재 주가로는 GM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
 - 미 재무부는 GM 주가가 53달러는 돼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며, 지난 주말 종가 24.14달러로 재무부가 지분을 팔면 손실이 15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

2) 무디스, 내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전망 하향 조정

- 지난 9월17일(현지시간) 무디스는 유럽의 수요 둔화와 중국의 판매 부진 등으로 2013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 2013년 글로벌 자동차(light vehicle) 판매량은 지난 1월 4.5%대비 1.6%p 낮아진 2.9% 증가할 것으로 하향 조정
- 아울러 무디스는 향후 12~18개월간 자동차 업체들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
 - 만약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성장세가 앞으로 2년간 5%를 넘거나 가동률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적이 되면 전망은 '긍정적'으로 조정될 수 있고 설명